

제주자연석 섬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자치경찰단 1~2m 짜리 4점 도외 반출 시도 적발 허가 없는 반출 모두 불법... 반출자 5년 이하 징역 불법 거래되는 '보존자원' 매수자는 처벌기준 없어

제주지역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자연석 4점을 팔 목적으로 도외 지역에 불법 반출하려던 업자가 적발돼 자치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매 목적의 자연석 불법 반출 시도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문제는 보존자원을 매매목적으로 도외 지역에 허가없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선 제주특별법상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를 산 도외지역 매수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의 의뢰를 받아 자연석 불법 반출 미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항 5부두에서 크기 1~2m에 이르는 암석 4개를 실은 트럭을 발견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이 암석은 자연석으로 확인됐다.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cm 이상인 자연상태의 암석은 조례에 의해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다.

자치경찰은 도내 모 업자가 이 자연석을 도외 지역에 팔아 넘길 목적으로 허가 없이 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제주특별법 473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제주도 밖에서 도내 보존자원 관련 매매가 이뤄질 때다. 제주특별법 제361조는 보존자원 매매 허가 대상을 '제주도에서 매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제주도 밖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도내 보존자원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매매 목적이 아

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존자원을 허가 없이 도외 밖으로 파는 자는 무허가 반출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산 제주도 밖 매수자는 고의성이 입증돼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때문에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도 "현행 특별법상 제주도 밖에서 이뤄지는 보존자원 매매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무허가 반출이 이뤄져도 도외 매수자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외 매수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완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종합소비생활만족도 전국 최하위

소비자원 조사 62.8점 전국평균 69.9점 기록

제주지역 종합 소비생활만족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발표한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가 체감하는 종합 소비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2.8점으로, 2017년(67.8점)에 비해 5.0점 하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년마다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생활 중요도와 만족도 및 소비자피해 경험, 소비자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전국평균(69.9점)을 크게 밑돌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자치체별 종합 소비생활 만족도를 보면 대구(76.8점) 부산(73.4점) 울산(72.2점) 전남(72.0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62.8점)와 경남(65.1점), 강원(65.5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제주는 소비자문제 경험률이 7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전국의 소비자 문제 경험률은 전화권유판매(67.1%), 해외직구(50.4%), SNS 플랫폼 쇼핑(49.4%) 등에서 높게 나왔다. 김경성기자

학생 상습 성추행 외국인교사 징역 3년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습격해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교사(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교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내 한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던 지난 4월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한 여학생(12)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

듬 등 지난 3월부터 약 한달간 9차례에 걸쳐 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표선고등학교 '한국어 IB 학교'로 선정

제주도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어 IB(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로 표선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IB DP(고교 2년간의 국제공인 대학입학 자격 프로그램)가 도입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제주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선고를 한국어 IB 학교로 선정했다.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긴 했지만 심의위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표선고를 IB 학교로 인증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표선고는 도교육청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IB 학교 공모에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표선고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주

형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으며 IB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표선고가 IB 학교로 최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등 IBO(IB 사무국)의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심학교 자격을 얻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 IBO에 학교 정보를 제출하고 내년 3~4월 후보학교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년간 IB DP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다. IB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비영리교육 기관 IBO가 운영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 세계 150여 국가에서 5000여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금오름 탐방로에 박힌 철근핀 '눈살'

매트 철거하며 고정핀 부실 제거 한림읍 "안전위한 임시 방편" 해명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오름 일대에 야자매트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됐던 철근핀들이 땅에 박힌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오름 탐방로 숲길 바닥 곳곳에 철근핀들이 박혀있다. 김현석기자

13일 금오름 입구로 들어서자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시멘트 길과 숲길로 조성된 탐방로가 나타났다. 탐방로를 따라 10여m 올라가자 숲길 바닥에 철근핀들이 곳곳에 깊숙이 박혀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아 3명의 인부가 대형해머, 곡괭이 등을 들고 야자매트 등을 고정했던 철근을 찾아 땅속에 묻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한림읍사무소에 따르면 12~13일 이틀간 금오름 탐방로 일대에 야자매트 등을 고정했던 철근을 제거하거나 땅에 박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최근 금오름 탐방로 일부 구간에 설치됐던 야자매트가 노후화로 인해 철거되자, 이를 고정했던 철근으로 인한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작업은 임시방편일 뿐, 땅에 박힌 철근이 또다시 돌출돼 똑같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 현모(54)씨는 "탐방객들이 통행하거나 비가 오다 보면 다시 철근핀들이 돌출돼 같은 문제가 발생할텐데, 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철근핀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림읍 관계자는 "최근 가을 산행을 즐기는 탐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부 철근은 제거하고 일부는 땅에 묻는 작업을 임시로 실시했다"며 "금오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와 협의를 한 후, 탐방로 일대 정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교통량 많은 노형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첫 설치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내 첫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가 제주도 노형 지역에 설치됐다. >>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도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측정망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 노형오거리의 지난 2017년 기준 시간당 통행량이 5049대로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향후 드림타워 건설, 공항 우회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과 정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량 역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형측정소는 도로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개 대기오염물질(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상시 측정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제주 편백 숲

최대 편백 숲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 흑염소 먹이들이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T. 064.805.5099

T. 064.764.6678